

Merck, 독일 기업박람회 참가

한국Merck는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리는 독일 기업박람회에 참가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Merck를 소개할 예정이다.

Merck 의약사업부서의 새로운 이름인 Merck Serono는 전시회에서 항암, 신경, 불임 그리고 기타 치료군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며, Merck 화학부서들은 디스플레이 관련기술, 생명과학, 시약시장, 코팅과 화장품 산업을 위한 안료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만나온 Merck를 확인 할 수 있는 부스 전시와 이벤트도 진행된다.

340년의 역사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학 및 의약기업인 Merck은 세계 최대의 액정제조기업으로 한국에서는 1989년 머크주식회사로 법인등록을 마치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Merck Advanced Technologies(MAT)를 설립했다.

또 2002년에는 경기도 평택 포승산업단지에 R&D 센터와 생산시설, 물류창고도 건설했다.

Merck는 2월 한국에 첨단기술센터(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설립을 위해 140억원을 투자하고 액정 연구기술과 생산력을 강화해 산업리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이끌어 한국 디스플레이기업의 세계시장 선도에 공헌토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5/29>